

치 사

오늘 우리는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개원이라는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지만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이 치유하기 어려운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지기에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게 일어납니다. 목숨이 다하여 임종을 맞을 때도 부처님께 의지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자비의 실천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는 우리 불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병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며, 그 어떤 보시보다 훌륭한 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간병의 공덕을 우리 불자들이 잘 실천하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불자로 살아 왔음에도 정작 병상에 누운 삶의 마지막에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불교와의 인연을 놓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종단적으로 간병, 호스피스, 병원 포교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능행스님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편히 임종을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짓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우고 공심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불자들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은 소중한 인연이며, 마침내 오늘 뜻깊은 개원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극한 신심으로 이루어낸 단비와 같은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실천해온 보살행에 큰 치하의 말씀을 전하며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신심을 더하신 전국의 불자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불교계의 실천 활동은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포교활동 역시 또 한 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약사여래는 12가지 큰 서원을 세워 마침내 모든 중생을 치유하는 부처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불자들이 이웃의 아픔은 물론 시대의 아픔까지 치유할 수 있는 실천행에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간절한 서원을 새기어 오늘의 개원식이 더욱 큰 의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의 공덕으로 더 많은 원력보살들이 출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곳이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이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참뜻을 실천하는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